

## 금속노조, 최강 한파 뚫고 청와대 흔들어

### 24일, 2018년 신년투쟁 선포식...구조조정 중단, 노조 할 권리,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

체감 온도 영하 20도.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3대 요구안 쟁취를 결의하는 2018년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1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일방 구조조정 저지, 노동약법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금속노조 2018년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



고 올해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선포식을 마친 노조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구조조정 중단, 노조 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 문재인 정부 3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동자는 2018년에 산별교섭이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금속노조의 열기와 투쟁으로 2018년 승리하자"라고 결의를 북돋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시를 통해 "함께 살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금속노동자들의 소박하고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재벌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80만 민주노총은 완강

히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라며 재벌 기업들이 산별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일방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받는 사업장 대표자들이 규탄발언에 나섰다. 강기성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성동조선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통제로 일감이 부족해 조합원 대부분이 휴직에 들어갔다"라며 "국책은행과 정부는 매년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헌법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강요한다"라고 비판했다.

24일 구조조정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고 조합원 3,500명과 함께 상경한 정송강 노조 광주전남지부 김호타이어 국성지회장은 "2009년 무능한

경영과 욕심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 40%의 임금삭감과 600여 개 직무 도급회라는 살인적인 구조조정 끝에 워크아웃을 벗어났지만, 경영진과 산업은행의 무능으로 다시 자율협약이라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광화문에서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울겨울 최강 한파를 뚫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서 강상호 기아차지부장이 발언에 나섰다.

강상호 지부장은 "자본과 정부, 언론은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라는 누명을 씌워 2018년 투쟁의 선봉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선봉에서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일방 구조조정 중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약법 철폐와 노조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조합원들은 노조 할 권리, 일방 구조조정 중단과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조의 소망을 담은 박을 터뜨리며 대회를 마쳤다.

### 쌍용차지부, 인도 원정투쟁 마치고 귀국

#### 53일 인도 원정투쟁단 귀국 기자회견... "주간연속 2교대제 연계해 해고자 문제 해결하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로 떠났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원정투쟁단이 53일간의 투쟁을 마무리 짓고 1월 23일 귀국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범국민대책위는 1월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해고자 복직, 손배기입류 철폐,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상균 석방, 인도 원정투쟁단 귀국 기자회견'

을 열고 투쟁경과 보고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쌍용차지부는 "아난드 마힌드라그룹 회장이 대리인으로 지목한 프루키 위헤지르 부사장(인사 참모)을 만나 우리 의견과 해고자 복직 요구안을 전달했다고"라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원정투쟁에서 인도의 11개 모든 노총의 서명을 받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공문을 마힌드

라그룹에 보냈다.

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아 끝장을 보는 협의를 할 것"이라 밝히고 "그래도 복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동안 해온 모든 방식을 모아서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 노동자 고통전담, 또 받을 수 없다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중국공장 정리, 채무조정, 광주공장 투자가 금호타이어 살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1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 금호타이어 지구계획안 폐기,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 를 열었다.



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3천여 명이 산업은행 앞에 운집해 일방 임금삭감 거부를 외치고, 구조조정 폐기를 요구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지회에 ▲무급휴무 ▲임금동결 ▲근무형태변경 ▲임금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폐지 등의 지구안을 들이민 상황이다.

김현석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 4천여 금호타이어 노동자가 12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여금도 못 받았다. 1월 급여도 나오지 미지수다 ” 라며 “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2010년부터 관리감독 했는데 회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억울해서 서울까지 달려왔다 ” 라고 분노했다.

김현석 지부장은 “ 국내 노동자가 뼈 빠지게 4,800억 원 흑자 내고, 해외 공장에서 4,600억 원의 적자가 쌓였다. 경영진 잘못된지 뻔히 보는데 노동자한테 고통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 라며 “ 채권단이 채권 연장을 미끼로 흔들며 협박하고 있지만, 총칼 앞에서 굽히지 않은 광주의 노동자들이 우리다. 고통 전담의 지구 계획안을 받는 식의 양보할 생각이 결단코 없다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월 26일로 예정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 연장을 위해 2월 말까지 지구안이 주요 내용인 약정서에 지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 오늘 24일은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을 전개하는 날이다. 핵심 주제가 구조조정이다. 금호타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투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라며 “ 동지들과 함께 금속노조가 새출발하겠다. 노조를 믿고 함께 투쟁하고 승리할 수 있다 ” 라고 격려했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 보수연론이 금호타이어의 골든타임을 노조가 망치고 있다는 기사를 쓰고 있다. 회사는 누가 망쳤고 회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되물고 싶다 ” 라며 “ 금호타이어 현재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해법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경영진 가족 다름 때문인지 중국투자 문제 때문인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중국공장 정리 ▲단기 악성 채무 출자전환과 재무건전성 확보 ▲광주공장 설비투자 확대가 금호타이어가 살 길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삼수 금호타이어지회장은 “ 금호타이어가 어려울 때 노동자가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았는데, 또 우리만 고통을 전담하라고 한다 ” 라며 “ 산업은행과 박삼구에게 뒷짐 지고 노동자 임금 깎는 게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 지회는 올바른 해법을 관철해 조합원 생존권과 일터를 반드시 지키겠다 ” 라고 결의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조삼구 지회장 식별식을 벌인 후, 구조조정 저지의 의지를 담은 상징물을 불태웠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장은 “ 승합차에 사람을 가두고 조합 탈퇴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 라며 “ 포스코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포스코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라고 지적했다.

의 문구도 있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장은 “ 승합차에 사람을 가두고 조합 탈퇴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 라며 “ 포스코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포스코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라고 지적했다.

## 포스코, 승합차에 조합원 가두고 탈퇴 강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폭로... “정부는 권오중 회장 구속 수사에 나서야”

금속노조와 국회의원들이 노동부를 향해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와 이용득 의원실(민주당),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은 1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포스코가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별,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 조합원들을 협박, 회유해 노조에서 탈퇴시키거나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금속노조 지회를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임금 차별을 사용했다. 포스코가 제시한 속성 상생 협약서에 금속노조 탈퇴 시 정규직 임금인상을 대비 20% 더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임금인상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경고

의 문구도 있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장은 “ 승합차에 사람을 가두고 조합 탈퇴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 라며 “ 포스코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포스코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라고 지적했다.